



토끼의 죽음

서울 등양초등학교 6학년 5반 김 선 익

지난 해 8월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 우리 가족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정들었던 동네와 친구들 곁을 떠나 낯선 아파트로 이삿짐을 옮기던 날, 풀이 죽어 시무룩해 있던 동생과 내게 아버지께서 작은 상자를 내미셨다.

“아빠, 이게 뭐예요?”

“열어보렴.”

동생과 나는 상자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파다닥 파다닥’

상자 안에는 인형처럼 작고 귀여운 토끼 두 마리가 들어 있었다.

“어때, 마음에 드니?”

“예. 정말 예뻐요. 아빠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섯이었지만 새 가족이 된 토끼 두 마리까지 일곱 식구가 되어 아파트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동생과 나는 종이 상자로 토끼집도 만들고 먹이도 맛있게 준비해 정성껏 토끼를 돌보았다.

토끼들은 방바닥을 미끄러지면서도 ‘팔닥 팔닥’ 건강하게 뛰어 놀며 잘 자랐다. 그런데 아파트로 이사온 지 일주일 되던 날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날은 일요일이어서 우리 가족은 이문동에 사는 할머니 댁에 다녀온 길이었다.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들어서서 순간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할머니 댁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건강하게 뛰어 놀던 토끼들이 방바닥에 납작하게 배를 깔고 죽어있었기 때문이었다. 토끼 입에는 피를 토한 흔적이 남아있었고 악취도 심하게 났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 일까?’

동생은 죽은 토끼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슬픔에 앞서 토끼가 왜 갑자기 죽게 되었는지가 궁금했다.

그때 누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토끼가 담배를 먹은 것 같아요.”

누나 손에는 아버지께서 피우시다 남긴 담배 갑이 들려 있었다. 담배 갑을 자세히 보니 토끼가 담배를 뜯어먹은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께서 씩씩하게 웃으셨다.

“그렇게 웃고 낄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담배가 얼마나 독하면 멀쩡한 토끼가 죽겠어요.”

어머니께서 몹시 화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셨다. 늘 담배를 즐겨 피우시는 아버지께선 할 말이 없으신지 ‘허허’ 웃고만 계셨다.

나는 그날 있었던 ‘토끼의 죽음’을 겪고 나서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아버지께서 피우시는 담배가 건강한 토끼의 생명을 빼앗아 갈 정도로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놀라왔다.

‘담배가 그렇게 나쁜 것인가?’

그날 나는 담배가 얼마나 위험하고 나쁜 것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담배를 피우신다. 곧 안 피우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다.

동생과 나는 토끼를 다시 기르고 싶지만 아버지께서 담배를 안 피우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를 마음은 토끼를 기르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하루 빨리 담배를 끊어서서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